서구 상상력의 역사 연구*

홍 명 희
(경희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상상력과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화두는 이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지 오래다. 상상력이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물론 바슐라르를 비롯한 20세기의 상상학 연구자들의 공헌이 절대적이다. 바슐라르G. Bachelard, 뒤랑G. Durand, 리쾨르Paul Ricoeur, 코르벵H. Corbin, 들레즈G. Deleuze 등을 위시한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원천으로써의 상상력의 위상을 새로이 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주변적 가치에 머물러 있던 상상력에 대한 논의는 '상상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방법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1]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인간 사상의 외곽에 위치한 상상력이었지만, 그 명맥이 끊이지 않고 오늘날 이론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상상력이야 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Cf. 홍명희, 「프랑스 상상력 연구의 제 경향」, 불어불문학연구 50권, 2002.

www.kci.go.kr

그러나 20세기의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 이래로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존재해 왔었다. 상상력은 때로는 당대 사상의 중심에서 열광적인 환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된 사상의 대척점에서 배척당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까지 이어져 왔다. 서구 사상사에서 상상력은 끊임없이 억압과 배제의 압력을 받아왔지만, 상상력 자체와 그에 대한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상상력은 억압과 배제의 압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20세기 상상력 연구에 있어서의 화려한 결과도 이러한 잠재적인 관심의 밑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20세기 이전의 상상력 연구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상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II. 상상력 인식의 역사

1. 상상력이라는 모순

서구 사상사에서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원천은 플라톤의 판타시아 phantasia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판타시아의 개념은 이미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이마고Imago에서부터 출발한다, 원래 이마고는 재현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본의 특성을 뜻한다. 그래서 이미고의 최초의 뜻은 원본과의 유사성 내지는 공통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마고는 어떤 것을 닮거나 본뜬 상이라는 에이콘 eikon과 환영 또는 가상이라는 의미의 판타스마pantasma를 모두 함축한다. 이러한 이마고의 의미에 그리스어의 영향으로 창작 또는 경탄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고 확장된 의미의 판타스마가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의미의 판타시아 개념이 나오게 된다.

플라톤은 지각과 현상에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리에서 판타시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사물의 현상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 데, 그 현상은 현실의 실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데아의

www.kci.go.kr

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는 실재하는 본성이 아닌 그것의 이미지, 즉 모사품들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정보가 아닌 가상의 정보만으로 지각을 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 있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의적으로 그리게 되고 그것을 실재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리는 능력이 판타시아이다. 그러므로 판타시아가 만드는 영상은 결국 참된 영상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닌, 즉 사이비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플라톤에게 있어서 판타시아는 지각의 핵심 과정이면서 동시에 거짓을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플라톤은 애초부터 사고를 통한 지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인간의 올바른 지각 행위를 현혹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했다. 플라톤은 철학만이 참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방을 통한 진리에의 도달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자연의 모방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하는 예술이야 말로 인식의 가장 열등한 단계라고 생각했으며 예술가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타시아에 대한 이러한 플라톤의 태도는 서구 사상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이후 상상력과 예술을 억압하는 시발점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시아를 감각의 대상이 사라진 후 나타나는 잔상으로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판타시아는 감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감각이나 지각 자체는 아닌 능력이다. 감각은 항상 참인데 비하여 판타시아는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이 판타시아는 감각과 사유의 매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사유는 대상으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감각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각자료들을 막바로 사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타시아가 감각자료들을 사유자료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들어온 감각자료들로 판타시아는 모상(母象), 즉 판타스마를 만들고, 여기에 인간의 지성이 작용하여 사유 자료들을 만든다. 지성은 복수의 판타스마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보편적 유개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판타시아는 감각과 사유의 매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어느 쪽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에서 보듯이 고대 철학에 있어서의 상상력

www.kci.go.kr

의 개념은 주로 인식작용의 한 과정, 내지는 인식의 중간 요소정도로 취급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상상력을 인간정신의 부정적인 요소 또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지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요소, 즉 필요악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출발점은 이후 서구의 상상력 연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창조적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 놓게 된다.

이렇듯 phantasia의 개념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인식의 매개체로서 정의되고, 후에 상상력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이 상상력이라는 개념은 서구사상사에서 오랫동안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확실성을 통하여 변증법이라는 이원론적 추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었다. 제 3자 제외의 법칙은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방법론을 이룬다. 이러한 태도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완성된 이래로 서구사상사를 가장 최근까지 지탱해 온 근간이었다. 참과 거짓이라는 인위적인 이원론의 두 항만을 상정하고 나머지 모든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미지와 상상력은 의심의 제 일 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감춰진 현실'로써만 나타날 뿐 본질적으로 이원론이 강요하는 참이야 거짓이냐라는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상력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껄끄러운 것이었다. 사실 플라톤도 이미지의 속성에 대해서는 명쾌한 논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여지를 남겼다. 그는 영혼의 존재, 사후의 세계, 사랑의 신비 등은 논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인정했고 이러한 것들은 현실 너머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 등장 이전의 다신교들은 논리적 증명보다는 자유로운 이미지와 상상력에 의해 발생되고,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다신교적 특성 등은 심지어 기독교 내부에까지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예수의 이미지와 성자들의 동일시 현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세례 요한 등을 위시한 모든 성자들을 숭배하는 경향은 명백히 다신교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www.kci.go.kr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동시에 다신교적 숭배의 전통도 꾸준히 그 이면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뒤랑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추론으로 대변되는 서구 사상의 발전 과정은 이러한 상상력이라는 모순에 대한 대항의 과정이었다. 즉 서구 문명은 한편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들과 이에 기인하는 생산, 재생산의 과정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든 진리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성상파괴주의적 성향을 합리화해 온 것이다.

2. 상상력의 퇴출

서구의 문명을 성립시키고 고착화 시킨 주요한 영향들 중 가장 큰 것으로는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4세기 이래로 서구 정신사를 완전히 지배 하게 된 기독교의 정신은 서구 사회의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까지 규제하게 되는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유일신 신앙이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신 이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교리는 사실 고대 사상의 기반이 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초기의 박해를 극복하고 서구 사회의 유일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는 자신의 교리의 핵심으로써 기존의 신비주의적 교리나, 초월적 힘에 대한 맹목적인 강요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설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서기 8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성상파괴주의 iconoclasme였다. 이미 구약성경의 모세의 십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성한 것들의 제작을 금지시키는, 즉 우상 숭배의 금지는 그 구체적인 수단인 모든 신성한 이미지 제작의 금지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이미지와 상상력 등 비이성적인 모든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천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성상파괴의 전통은 자연스럽게 철학의 분야에서의 진리 탐구의 방법론과 연결되게 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www.kci.go.kr

이원론적 서구 인식론의 전통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기독교 문명 하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고대 사상의 전통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었다. 중세의 대표적 신학자이자 합리주의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Saint-Thomas d'Aquin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합리주의와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를 결합시켜 스콜라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만들게 된다. 그는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을 구별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서이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은 신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도 신의 의지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한 이성의 역할은 신앙의 전단계(Praeambula Fidei)로서 신앙에 봉사하는 것이라 하였다.

> 이성적인 피조물에는 그 자체에 대해 경의가 표해질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만일 하느님의 이미지인 이성적 피조물에creaturae 라트리아의 경배가 표해진다면, 이는 오류이다. 경배의 움직임이 피조물res에 불과한 인간에 머무를 뿐, 그가 이미지로서 표상하는 하느님에게로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감각되는 물질로materia 깍아지고 그려진 이미지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2)]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이어서 합리주의적 근대 사상체계의 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이다. 갈릴레이는 근대의 수량적 자연관을 수립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천문학의 분야에서 지동설을 지지하는 그의 업적은 그때까지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우주관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서구 사상을 전복하기 보다는 결과론 적으로 인간 이성에 기반한 수량적이고 논리적인 세계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의 명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리주의를 완성시킨 데카르트 역시 아

2) T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vol. 50 pp. 194-195, 신준형,「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상이론 : ICON, INDEX, ISLAM」p. 52에서 재인용

www.kci.go.kr

리스토텔레스의 오류를 수정하며 근대 사상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그의 궤적은 결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데카르트에 의해 과학에 있어서 진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론으로서의 배척주의는 모든 학문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인간의 이성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리하여 "광기가 머무는 장소"[3] 취급을 당하는 상상력과 이미지는 설교자들이나 시인 또는 화가들의 설득의 기술 정도로 폄하되게 되고, 진리를 찾는 예술의 위엄에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갈릴레이의 유산과,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시스템은 단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단차원적인 체계, 즉 기계론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체계는 하나의 정의로 우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정론의 범주에 들어 있다. 이때부터 상상력은 오류와 거짓의 원흉(maîresse d'erreur et de fausseté)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1694년에 발간된 아카데미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ie*)은 상상력을 '그릇되고 이상한'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데카르트, 파스칼 Pascal, 라 브뤼에르 La Bruyère등이 동조했으며 18세기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상상력 폄하에 결정적 기여를 한 또 다른 사조는 사실적 경험주의였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또 다른 측면인 사실적 경험주의로 기울게 된다. 베이컨 Francis Bacon과 로크 John Locke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흄 David Hum과 뉴턴 Isaac Newton에 의해 완성된 사실적 경험주의는 얼핏 보면 연역적 방법론에 대응하는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의 대응사상, 또는 반(反)이성적 방법론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사실적 경험주의도 사실은 합리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적 경험주의에서 강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써의 경험은 일상적 의미의 경험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검증을 받은 사실, 즉 사상(事象, fait)에 입각한 경험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적 경험주의는 관찰과 경험조차도 이성의 판단에 근거하고자 하는 더욱 강화된 합리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성에 기반한 사실만을

3) G. Durand, *Imaginaire*, p.7

www.kci.go.kr

인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상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고, 갈수록 정신적 착란현상이나 환각 등과 혼동되게 되고 급기야는 비이성적 사실의 대표 격으로 규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18세기의 계몽주의는 비잔틴 시대의 성상파괴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파괴하고 추방하는 데 앞장서지는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이성의 반대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 가능하고 탐색 가능한 세계, 즉 가시적 현상의 세계와 죽음, 사후세계, 신 등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세계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이것은 사실 플라톤 이래로 서구사상사를 지배해 온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이성과 비이성의 구별에 다름 아니었다. 이성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모든 요소는 비이성이라는 굴레를 쓰고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박탈당하게 되는 데 그 선두 주자가 바로 상상력과 이미지였다.

이러한 사실적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적 성상파괴의 엄격성이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 19세기의 실증주의이다. 콩트 Auguste Comte에 의해 집대성된 실증주의는 형이상학적 사변을 배격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함으로써 무엇보다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콩트는 자연과학에 사용되는 실증적 연구방법이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과학이 '형이상학적이며 오직 사물의 본질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철학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 지식 발전 단계를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구분하고[5], 앞의 두

4) 실증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객관적 인식 추구
② 보편적 경험주의
③ 경험과 논리의 이원화
④ 가치와 사실의 분리 : 가치의 중립성 추구
⑤ 자연과학적 방법론 중시
⑥ 유기체적 세계관 (한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속성 갖는다. ->19세기 생물학의 발전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

5) 콩트는 인간의 지식발전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 한다
① 신학적 단계 : 모든 현상이 초자연적인 신성한 힘에 의해 설명되는 단계.
② 형이상학적 단계 : 신학적 단계의 변형. 초자연적인 힘을 인격화된 추상개념이나 형이상학적 본질로 대체한다.
③ 실증적 단계 : 인간 인식의 최종 단계. 사물의 인식에 있어서 현상들 간의 불변

www.kci.go.kr

단계가 최종 목적지인 실증적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정의함으로써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인간의 삶으로부터 몰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7세기부터 말살되기 시작하던 상상력은 공식 지성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III. 상상력 개념의 변화

고대 이후로 억압되었던 상상력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혁명적 상황들에 의하여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상력의 혁명은 때로는 느릿한 리듬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한 흐름을 타기도 하였지만 그 운동의 공통적인 성격은 상상력이 언제나 진화의 흐름을 이루었고 직접 간접적으로 현실사회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상상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최초의 문화 혁명이었다. 15-16세기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르네상스는 흔히 고대 문화의 현대적(15-16세기적) 재해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명의 핵심은 세계관의 변화였다. 즉 미학의 기준으로써 인간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플라톤적 수사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비유와 신화의 형태로써 개념의 상징화를 선호하게 되었고, 관념적 사유보다는 관찰과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개인성과 차이를 부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표출하느냐의 문제였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미학의 기준을 이루게 된다. 모든 관심사의 중심에 위치한 인간이야말로 그 자체로 신의 가장 아름다운 구현체였고, 자연과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완벽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 시대의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조화의 개념 위에 형성되게 된다. 르네상스의 출발은 다양성과 차이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인 관계만을 고려하며 경험을 초월한 존재에 의한 설명을 배격한다. 콩트는 이러한 인간지식의 3단계가 학문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인간 역사의 진보와 동일시한 것이다

www.kci.go.kr

풍부해진 인간의 인식은 각 인간 사회들의 지리적 기술적 언어적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바벨탑의 신화는 이러한 차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상징적 표현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방해물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르네상스에게 헤르메스 신화의 특징을 부여하였다. 14-15세기 유럽의 지리적 발견들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세계의 다양성에 대해 열광하게 하였고,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조화를 추구하게 하였다. 조화에 대한 열망과 상상력은 예술의 분야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 바탕에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토대가 있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관은 자연을 예술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모방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예술작품에 담으려 애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방하는 행위 자체였다.

> La substitution de l'art à la nature comme modèle formalisateur fait que le plus important n'est pas ce qu'on imite, mais la manière d'imiter. Ainsi s'explique le recours aux prouesses de la technicité. On met en valeur les effets les plus inattendus des lois de l'optique : déformations obtenues par modification de l'angle de vue ou anamorphoses, effets de trompe-l'œil par hyperbolisation des lois de la perspective, complications dans l'écriture musicale, insistance sur les effets de la rhétorique.
> 형식화의 모델로써 예술의 자연에의 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정교한 기술 과정에의 추구는 이와 같이 설명된다. 그들은 시각의 법칙에 가장 들어맞지 않는 효과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것은 시각의 변화나 왜곡에 의해서 얻어진 기형적 변형들이거나, 원근법의 과장에 의한 눈속임의 효과들, 수사학의 효과에 있어서의 음악적이고 반복적인 복잡성 등이었다.[6]

가장 이상적인 자연을 완벽히 모사하려는 시도는 이성의 측면에서부터 시

6) CL. G. Dubois Les transformations de l'imaginaire européen in *Introduction aux méthodologies de l'imaginaire*, p. 74

www.kci.go.kr

작되었다. 르네상스이전 시기의 조화의 추구는 사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고대 기하학에서 발견된 황금비율은 음악에 있어서의 음계와 화성법의 근거가 되었고, 미술에 있어서의 원근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르네상스 이전의 세계관은 이러한 수학의 원리로서 우주의 조화를 파악하려 하였고, 자연스럽게 르네상스 시기의 자연 모방의 절대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형태적 조화미에만 치중한 자연의 모방은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자연의 모방은 단순한 모사에 그칠 뿐 예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힘, 즉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자연히 모방의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의적인 상상력에 의한 과장된 표현이 개입되게 되고 이것은 곧 르네상스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

> La conséquence en est une perte du sens de l'harmonie et de la totalité qui caractérisaient la Renaissance. L'univers est représenté comme une énigme, un labyrinthe (figure récurrente de l'art et de la littérature, illustrée par les mythes de Dédale, d'Icare et du Minotaure), une caverne peuplée de forces obscures ou maléfiques. Une « démonie » universelle s'empare du monde : c'est l'époque des magiciens, des prophètes (Nostradamus), de la vogue des techniques divinatoires, de la chasse aux sorcières.
> 그 결과는 르네상스의 조화성과 전체성의 의미 상실이었다. 우주는 수수께끼나 미로들(다이달로스, 이카루스, 미노타루스의 신화들에 나오는 예술과 문학의 되풀이 되는 형태), 그리고 어둡고 사악한 기운들이 넘치는 동굴로 표현되었다. 우주적으로 퍼진 '악마성'이 세계를 점령했다. 그것은 마법사들과 예언자들(노스트라다무스), 예지적 기술들의 유행, 그리고 마녀사냥의 시대였다.[7]

그 결과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관은 그 이전 시대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 그것은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였다.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의구심, 즉 회의주의로 대변되는 르네상스의 속성은

7) Ibid.

www.kci.go.kr

내적인 갈등과 자아의 표현을 감성적이거나 환각적인 예술의 내용으로 표출해내게 되는데, 이는 곧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르네상스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고 곧 이어서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표현양식과 직결되게 된다.

Ⅳ. 상상력의 복권

18세기는 17세기의 합리주의와 곧 도래할 낭만주의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던 시기이다. 이성과 감성을 대변 한다 할 수 있는 이 두 경향의 결합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시기는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이성과 과학적 합리화의 확산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된 낭만주의에 의해 확산된 신비한 힘의 형이상학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시기이다. 합리주의자들은 진보 철학을 언급하면서 유토피아를 끌어들였고, 르네상스의 계승자들이었던 상상력의 신봉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힘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을 찾았다.

고대 이래로 오랫동안 미학에 있어서 이미지와 상상력은 아름다운 형태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경험적 또는 초감각적 능력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에 대한 기준은 18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아름다움의 기준이 객관성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주체의 감수성에 즐거움을 주는 가의 여부, 즉 주관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730년대부터 뒤보스 J.-B. Dubos는 미적 경험 안에서의 자아의 관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독일에서는 1750년대부터 바움가르튼 Baumgarten이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감각적 인식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 이때부터 예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직접적인 예술 작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미적 의식을 뜻하는 것'[8]이 되었다. 예술가의 역할은 더 이상 자연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감동을 구성하는 것이 되었

8) E. Cassirer, *La Philosophie des Lumières*, Paris, Fayard, 1970, p. 293.

www.kci.go.kr

다. 이때의 상상력의 합리화의 핵심은 감성적 감동이 이성과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베크A. Becq의 '시적 이성raison poétique ', 루소 J.-J. Rousseau의 '감각적 이성 raison sensitive '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칸트 E. Kant의 경우 개인적 감성의 주관성과 이성적 객관성의 종합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보들레르는「1859년의 살롱」에서 상상력을 '재능의 여왕'이라 불렀는데, 그의 상상력의 개념에는 창조적 영감과 감수성의 움직임, 이성적 조작 등이 포함된다.[9)]

이렇듯 17세기 이성의 시기에 상상력은 미학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가게 된다. 예술에 있어서 상상력에 의한 초감각적인 직접적 직관에의 도달이 가능하다는 개념은 철학자들 사에도 보편적으로 용인되게 되고, 그 결과 상상력은 감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자발적인 능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때부터 꿈이나 몽상 같은 현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연의 밑바닥이나 이해할 수 있는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상상력은 또 한편 현실 속에서 변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힘으로 여겨지게 되는 데, 이것은 창조적 상상력 또는 상상력의 창조성의 측면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적 힘은 이미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 접신론이나 마법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정신과 물질의 매개체로서의 육체의 개념, 정신의 힘에 의한 물질의 변형, 고대 연금술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결합에 의한 변화 등이다.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의 개념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자연철학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셸링 F. W. J. Schelling 등의 선구자에 의해 발전된 독일의 자연철학은, 인간의 정신은 자연 현상을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카테고리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자연은 인간과 신성한 힘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물이고, 개인의 영혼이 상상력에 의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거대한 생명체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은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을 넘어 전체 우주를 이해하여야 한다. 후기의 자연철학은 점차 신비와 심리적인 현상 연구에 까지 영역

9) CF. J.-J. WUNENBURGER, Histoire des images aux XVIIIe-XIXe siècles in *Introduction aux méthodologies de l'imaginaire.*

www.kci.go.kr

을 넓혀 꿈이나 비정성적인 상태의 연구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의 창조적인 힘에 대한 자아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개념은 이미 17세기의 뵈메 J. Bœhme, 바더 F. vrin Baader, 18세기의 셸링Schelling의 자연철학 등을 거쳐 19세기의 피히테Fichte, 노발리스Novalis, 보들레르Baudelaire, 네르발Nerval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미학적 이론으로써 재평가되기 시작했던 상상력은 낭만주의 시기에 이르러 그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성중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다. 합리주의가 이성이라는 무기로써 세계를 분석하고 추론하여 파악하려 했다면, 낭만주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 너머의 세계를 그려내고자 했다. 즉 합리주의는 세계를 유한한 물질의 합으로 보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모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반면에, 낭만주의는 세계의 존재가 우리의 이성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차원의 인식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성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유한한 범주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만 유효한 이성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부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에 의하면 세계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수용하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우리의 이성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불완전한 지각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착각함으로써 합리주의는 오히려 세계의 완전한 이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과 이성의 착각을 직시하고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곧 낭만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 다시 말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언제나 세계의 불충분한 표면에만 머물게 되는 감관과 이성에 의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성적 인간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상력과 환상'의 길을 따라가는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이다. 낭만주의에 의하면 감각과 이성의 착각을

www.kci.go.kr

> 직시해야만 인간은 비로소 사물의 진정한 본질에 이를 수 있다. 합리주의와 현실주의의 지배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은 심오한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계몽된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낭만주의는 보여준다.[10]

합리주의의 틀 안에서는 우주와 자연이 인간의 틀 안에 갇히게 된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를 꿈꾸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과 환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상상력과 환상은 더 이상 합리주의 시대까지 서구 사상사에서 생각했던 오류와 거짓의 원흉이나 '그릇되고 이상한' 힘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 또는 의식의 통일성을 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11] 이 된다. 상상하는 자아라는 새로운 인간상의 대두에 따라 상상력은 처음으로 서구사상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상징주의와 20세기의 초현실주의의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V. 나오는 말

고대에서 낭만주의에 이르는 과정 동안 상상력에 대한 서구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주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억압과 배제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상상력은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 언제나 그 흐름을 유지하여 왔고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20세기에 들어서 바슐라르를 위시한 많은 상상력의 연구자들에 의해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이전에도 상상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천부적인 재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상상력이 서구 사상사에서 오랫동안 합리주의의 이름으로 배척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10)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pp. 31-32
11) ibid. p. 33

www.kci.go.kr

역설적으로 상상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뒤랑이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합리성과 상상력은 서로 대립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성을 내세운 서구의 합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기술문명의 눈부신 발달도 가장 밑바탕에서는 우리의 상상력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디지털 문명이라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사회이다. 현대사회가 이성 위주의 합리주의의 발달에 전적으로 기반 한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의 현대문명이 기계론적인 합리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이 극도로 복잡한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도 이성과 상상력의 만남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가 상상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성과 상상력의 균형점에서 서구 사상의 추가 지나치게 이성 쪽으로 기울어 왔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물질, 그리고 가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면서 인간의 상상력과 상상력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상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책세상 문고, 2001.
신준형,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상이론 : ICON, INDEX, ISLAM」, 『미술사학』 22호, 2008.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진형준, 『상상적인 것의 인간학』, 문학과지성사, 1992.

www.kci.go.kr

홍명희,「프랑스 상상력 연구의 제 경향」,『불어불문학연구』50권, 2002.
Aquinas, Tomas, *Summa Theologiae*. ed. Thomas Gilgy, Garden City, NY; Images Books, vol. 50., 1969.
Boia, Lucien, *Pour une Histoire de L'Imaginaire*, Les Belle Lettres, 1998.
Chauvin, Danièle *Question de mythocritique*, Paris, Imago, 2005.
Durand, Gilbert,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1993.
_____, *L'imaginaire*, Paris, Hatier, 1994.
Holton G., *L'Imagination scientifique*, Gallimard, 1982.
Thomas, Joël, *Introduction aux méthodologies de l'imaginaire*, Paris, Ellipses, 1998.
Wunenburger, J.-J., *L'imagination,* Paris, PUF, 1991.
_____, *Philosophie des images*, Paris, PUF, 1997.

www.kci.go.kr

❖ ABSTRACT

A study of the history of western imagination

Hong, Myung-Hee

In our days, we live in the world of image and imagination. Now we think that the images and imaginations are no more selective but indispensable elements in our life. The status of imagination is dramatically changed since 20 century. Many philosophers like G. Bachelard, G. Durand, Paul Ricoeur, H. Corbin, G. Deleuze made great contributions and we think that the studies of imagination began since 20 century. But the change of the status of imagination was not made in one day. In the long history of human life, the imagination kept his own value, and never stopped to give his influence to the human mentalities.

The concept of imagination was born from the Plato's notion of phantasia. Plato thinks that the phantasia is a kind of drawing capacity in mind in the process of recognition. But the image which phantasia makes is not real one but pseudo one. So it is necessary to banish those false images from our recognition. Aristotle thought phantasia as an afterimage of object of sense. The sense is always true, but the phantasia is very possible to be an error. After Plato and Aristotle, the notion of phantasia developed into that of imagination, but it was always a problem full of contradictions. According to G. Durand, we can say, in some sense,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is a kind of struggle against the image and imagination.

In Middle Age, the iconoclasm tried to exclude image from their religion. Thomas Aquinas tried to explain the image by the rationalistic christianisme. In 16-17C Galilei and Descartes solidified the exclusion of imagination from the philosophy in the name of science and reason. The empiricism and positivism was the final and the most conclusive philosophies which exclude the imagination definitively from the field of philosophy.

But the imagination continued his influence in the field of art. In the age of

www.kci.go.kr

Renaissance, the imagination found his way of liberal expression, and this trend was inherited to Baroque. From the middle of 17c many philosophical theories supported the imagination by many philosophers like J.-B. Dubos, Baumgarten, A. Becq, J.-J. Rousseau etc.

The Romanticism was the first significant wave which made the imagination come forward in front the art. The romanticism broke the narrow frame of rationalism and expand human's view of the world to the cosmos. From the romanticism, the imagination became a faculty which expresses the unity of human and nature. That was impossible by the rational thinking of rationalism. The concept of new imagination made a new future of human, 'the imagining conscious' and this imagining conscious provided a solid base of next generation's symbolism and surrealism.

Key Words
상상력, 이미지, 합리주의, 낭만주의, 미학
imagination, image, rationalism, romanticism, esthetics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

www.kci.go.kr